



## 어른이 읽어도 재미있는 그림책

《쥐돌이는 화가》 펴낸 이호백씨

창의력을 지닌 사람으로 키워내는 밑거름이다.

“그림책은 단순히 어른책을 아이들 눈높이로 끌어내린 책이 아닙니다.”

서울대 산업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2대학에서 수학한 이호백씨가 이해하고 꿈꾸는 그림책은 ‘걸림없이 자유로운 아이들의 심성을 담은 책’이다.

93년 귀국, ‘담이네 식구 아빠하고’ ‘꼬마책 동물의 세계’ (삼성출판사) 시리즈 ‘내가 처음 가본 그림 박물관’ ‘꿈의 동물원’ (길벗 어린이) 등 그가 직접 그리거나 기획해 세상에 내보인 그림책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는 이유는 여기서 비롯된다.

“낮선 책, 정의하기 힘든 책, 여러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울려나오는 책, 작가들의 개성과 창의력이 살아 있는 책이 제가 만들고 싶은 책입니다.”

— 박남정 기자

잘 만들어진 그림책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도 움직인다. 어린이 책을 전문으로 기획하고 있는 재미마주 대표 이호백(36)씨가 직접 그리고 구성해 내놓은 《쥐돌이는 화가》(비룡소)가 그런 책이다. 이 책은 ‘쥐돌이는 예술가’ 시리즈로 기획된 것으로 앞으로 《쥐돌이는 음악가》 《쥐돌이는 연극배우》 등이 더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의 주인공 쥐돌이는 대역섯살 가량의 남자아이. 엄마와 미술관 나들이를 간 쥐돌이의 눈에 비친 그림들은 재미있고 신기하기만 하다. 눈앞이 빙빙도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림은 낙서같기도 하다. ‘붕어 왕자’가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는 그림도 있다.

미술관을 나서며 화가가 되기로 작정한 쥐돌이가 자문을 구하러 찾아간 사람은 의외로 극장 간판을 그리는 곰아저씨. 화가가 되려면 그림을 늘 좋아해야 한다. 마음으로 먼저 그림을 그려 본 다음 종이로 마음인양 그리면 된다는 곰아저씨의 말은 그림은 이리이러해야 한다고 가르치려드는 우리의 미술교육을 되돌이키게 한다.

“외국의 경우 미술관이나 음악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습니다. 굳이 무엇을 가르치려 가는 것이 아니라 놀이터삼아 가는 것이지요”

파리에 살 당시 유치원생이던 아들 담이와 전시회 갔을 때의 일이 이 책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밝히는 이호백씨는 예술이란 아주 일상적이고 친근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그렇게 예술을 접한 아이들이 마음 속에 그려내는 무궁무진한 상상과 꿈이야말로 아이들을 풍성한 감성과



## 서민을 위한 세법 상식

《억울한 세금, 내지 맙시다》 펴낸 윤종훈씨

박달재의 결혼을 통해서 1가구 2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유예조항, 자산소득 합산과세 등을 설명한다.

“증빙을 열심히 챙겨야 합니다.”

윤종훈씨가 말하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다. 감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각종 영수증을 모아두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관점으로 회계학을 재편성한다는 야심찬 기획을 갖고 있는 윤종훈씨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김중배·도재식·김창국 공동대표)의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조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오는 11월 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참여연대 주최 ‘상속세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가한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노동조합 간부도 회계학을 공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하니까요”

서민을 위한 세법, 노동조합 간부에게 회계지식을 전달하는 책을 쓰겠다는 윤종훈씨는 《여성을 위한 세법》(가제)을 준비중이다. 전업주부·직장 여성·부업 주부 등으로 갈래를 나눠 세법지식을 전달할 생각이다.

— 최성일 기자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국회의원·변호사·의사 같은 전문직을 통해 사회에 진출해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경우를 ‘90년대적 성공’이라고 일컫는다면, 윤종훈씨(35, 윤종훈회계사무소 대표) 역시 그 성공을 일군 사람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평범한 젊은이에게 80년대의 여정은 순탄할 수 없었다. 윤종훈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80년 대학 입학, 82년 강제징집 입대, 88년 복학, 90년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으로 이어지는 윤씨의 이력은 그가 어쩔 수 없는 80년대의 ‘세레자’임을 말해준다.

그의 이력을 보면 제대에서 복학까지 공백기간이 길다. 곧바로 복학이 허용되지 않아 4년 동안 정비공과 택시기사로 일하며 두루 세상경험을 했다.

“택시운전을 하면서 다양한 무늬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세금, 내지 맙시다》(도서출판 보리)는 콧트 형식의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세금문제를 주인공 박달재의 삶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다. 세금 관련용어와 실생활과 밀접한 세금의 개념·산정방법, 절세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박달재의 출생에서는 ‘기본공제’를 설명하는데 소득세법에서 공제대상인 부양 가족의 존재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이 날 태어난 박달재는 출생 하루만에 아버지 박치기씨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하는 데 한몫했던 것이다.





## 고대부터 현대까지 미술의 흐름

### 《서양미술사 100장면》 펴낸 최승규씨

이상화된 인간과 세계를 작품에 구현한 것이다. 이 기품있고 아름다운 다비드는 성베드로 광장으로 유명한 건축가 겸 조각가 베르니니(1598-1680)의 다비드가 관객과의 교감을 증시하는 것과 다르다.

“또 1865년 아카데미 살롱에 입선한 마네의 ‘올랭피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알아야 합니다.”

상류층의 아름다운 부인(우르비노의 비너스) 대신 천박한 파리의 매춘부를 그린 ‘올랭피아’는 마네가 활동하던 당시 파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면이 적어 더 많은 도판을 넣지 못한 것입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20여년간 배운 내용을 고국의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쓴 《서양미술사...》 외에도 최교수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직 출판사를 정하지 못했지만 독일의 저명한 미술사가인 빌프린의 《고전 예술》을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영어로 된 한국미술사 개론을 쓰는 일입니다. 우수한 우리 예술을 전세계 사람들이 읽고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 이현주 기자

《서양미술사 100 장면》(가람기획)은 국내 저자가 쓴 대중적인 서양미술사다.

“현재 우리나라 미술사학계의 문제라면 평론가는 많지만 사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관적 감상이 주를 이루는 평론집들은 꽤 있지만 서양미술을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는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미술사책이 있다고 해도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쟈슨이나 고프리치의 미술사가 전부였다. 최승규 교수(65, 연세대)는 미술이 일반인들은 즐기기에 어려운 고급한 문화로 남아 있는 우리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번 책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도록 많은 도판을 넣었습니다. 외국학자들의 책에서 보이는 수사학적 표현도 되도록 피했습니다.”

최승규 교수는 특히 이 책에서 고전·바로크·로코코·르네상스 등 양식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술해 하나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미술사는 역사에 가까운데 일제 강점기에 국내에 미학만을 소개해서 철학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디다.”

실제로 미술의 양식이 변화하는 시기는 사상의 변화나 역사적인 사건, 사회적 변화기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미켈란젤로는 피렌체가 개혁정부로 첫발을 내디딜 때, 다비드를 조각했다.

“... 나의 영혼은 아름다운 것들을 명상하는 힘 말고는 하늘에 올라갈 다른 능력이 없네”라는 시구를 통해서도 보듯 다비드상은 지상미를 통해 천상미를 드러냈다. 전쟁과 폭력을 경험한 미켈란젤로가 네오 플라토니즘을 바탕으로



## 생활 속의 역사 인식을 위한 에세이

### 《역사를 위하여》 펴낸 강만길씨

저는 낙관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름이 있는 것이고 언젠가 민주주의에 긴장할 시간은 또다시 오게 마련입니다. 그들이 역사인식을 늘 잃지 말기를 바랄 뿐이지요.”

최근 역사관련서들이 흥미위주의 상식사, 근간 없는 문화인류학, 아사로 불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강교수는 유감스럽다.

“이런 역사이야기들은 흥미를 위주로 한 야담사화일 뿐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의 성찰도 없이 이야기를 소비하는 것이지요. 역사책은 지천인데 역사의식은 실종되어버렸습니다.”

온유한 필치지만 분단국가의 한 역사학자가 겪어 온 삶과 학문의 궤적, 우리 역사의 핵심적인 문제들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한 이 책은 역사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역사는 인간활동의 집적이라 말하는 강교수는 역사는 계속 발전해가는 것이며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의욕이 바로 역사의식이라고 강조한다.

“역사란 무엇이며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지요.”

— 마정미 기자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을 통해 민족사의 새로운 시계(視界)를 열었던 역사학자 강만길교수(64, 고려대)가 새책을 냈다. 에세이 형식의 《역사를 위하여》(한길사)는 일반 교양인들도 역사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간 써 왔던 글 중에서 비교적 가볍고 읽기 편한 글들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역사학자들의 글은 논문중심이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책에서는 조금 가벼운 글로 이 사회 지식인들과 90년대 학생세대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주(註)’가 붙지 않는, 이른바 잠문은 써서는 안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역사학은 왜 말이 없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골똘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의 지론. 강교수는 예전에 사회봉사 의무에 눈감을 수 없어서 ‘약간’ 활동했다가 대공분실에 끌려다녔고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이 책에는 서대문형무소에 대한 추억과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 그곳을 거쳐간 근현대사의 인물들에 대한 조명이 잔잔히 역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그를 감시하는 젊은 직원이 진급시험의 역사 교습을 부탁하여 때아닌 취조실의 선생이 된 적이 있었다. 구속기소가 결정되자 구치소로 가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일을 바로 그 학생이 담당하게 되었고 ‘선생’ 손에 수갑을 채우며 울고 말았던 그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담담하게 적혀 있다.

“70, 80년대의 활발했던 학생운동에 비해 90년대는 느슨한 상태로 보이지만

